

조선시대 제주지역 扁額懸板 연구

오창림*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판의 현황 및 특징
- III. 조선시대 제주지역 주요 편액현판
- IV.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지역에 유존하는 조선시대 양식의 주요한 편액현판 11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편액서를 쓴 인물의 신분유형을 보면, 제주출신과 유배객 그리고 목민관 및 중앙 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출신의 글씨로는 고득중(1388-1452)의 <홍화각>, 정상명(?-?)의 정의향교 <명륜당>, 김용정(1809-1890)의 제주향교 <계성사>가 있고, 유배객의 글씨는 김정희의 대정향교 <의문당>, 제주목 <연희각>, <은광연세>가 있고, 목민관의 글씨로는 김영수(1716-1786)의 <탐라형승>과 박선양(?-?)의 <호남제 일정>이 있으며, 제주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중앙관원의 편액서로 이산해(1539-1609)의 <관덕정>과 이종우(1801-?)의 제주향교 <계성사>가 전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공공건물 이외의 조선시대 편액현판이 아직까지 전해진 예는 거의 없다. 현판양식의 변화는 후기로 갈수록 테두리목을 덧대고 현판 주변부에 문양장식이 가미되긴 하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검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도의 편액현판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의 경우, 장엄과 장식을 통해서 위세를 드러내는 궁중이나 사찰 또는 사대부가의 유물로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주의 경우는 아마도 관가나 일부 규모가 큰 사찰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가집이었다는 점과 반도와는 달리 누정문화가 거의 없었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왕조교체기 및 端宗의 폐위를 계기로 자발적으로 입도한 제주지역의 문화지배층이라고 할 만한 선비들의 은둔자적 삶의 태도가 적잖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제어: 관덕정, 연회각, 제주목, 탐라형승, 홍화각.

I. 머리말

제주는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고장으로 ‘東瀛洲’라 불리었다. 봉래·방장과 더불어 삼신산으로 일컫는 한라산을 위시한 천혜의 자연경관은 수많은 문사들에게 선망의 명소였으나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곳은 아니었다.¹⁾ 실제로 섬의 곳곳 경승지의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마애명은 이를 잘 웅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람 타는 섬 제주에는 아무리 경관이 뛰어난 곳이라 해도 樓亭이 거의 없다.²⁾ 누정이 없으니 현관이 있을 리 없다. 때문에 반도와는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가진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공공건물 이외의 현관이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조선시대 양식의 편액현관은 대략 18점이 남아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제주지역에 현존하는 주요 편액현관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편액과 현관의 정확한 용어사용을 위해 그 개념을 정리하고, II장에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현관 현황을 문헌에 의거해 개괄하면서 현존 유물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본 뒤에, III장에서는 제주지역 주요 편액현관의 내용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도의 경우를 보면 어디든 고건축에는 현관이 걸려있다. 도성의 궁궐과

1) 李源祚, 『耽羅錄』, 耽羅錄序, “耽羅 世所稱 靈仙窟宅 而絶在重溟千里之外 以其絶也 則人憚之 以其靈也 則人願之 願者好奇 而憚者惜身 好奇者少 惜身者多”.

2) 여기서 누정이 거의 없다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희문화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누정을 말한 것이다.

지방의 관아시설, 사찰이나 향교 등 공공의 건물에는 물론이고 사대부의 저택이나 산림처사의 초가에도 어김없이 현판이 걸려있다. 특히 경관이 좋은 곳에는 반드시 누정이 있고, 경관에 상응하는 편액이 있게 마련이고, 후에 이 곳을 찾는 이들 또한 제영으로 화답하면서 현판을 거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왔다. 현판의 종류도 다양해서 건물을 지은 뒤 거기에 상응하는 이름을 짓고 걸었던 편액현판, 처음 건물의 이름을 짓게 된 사연이나 건물의 중창·중수 등의 내력을 적은 기문현판, 그리고 생활을 경계하는 잠언구 또는 시문의 좋은 구절을 적은 주련현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편액현판은 건물을 짓고 나서 그 건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름을 짓고 최고의 글씨로 장엄하려는 미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편액현판은 건축물의 얼굴이요, 건축미학의 화룡점정이라 할만하다.

최근에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으며, 2016년 4월 19일 189개의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550점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추세와 맞물려 편액현판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³⁾ 제주의 경우도 고창석·김익수의 『삼성사 소장 고문헌·편액』과 홍기표의 『제주의 편액』이 잇달아 출간된 바 있다. 전자는 삼성사에 소장되어 전해지는 편액현판과 기문현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서예사적 언급이 있었으며,⁴⁾ 후자는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액현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특기사항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변화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43편의 기문현판에 대한 해석문도 함께 실어 편의를 도모하였다.⁵⁾ 오창림은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에서 <홍화각> 및 <홍화각기> 현판에 관한 문예사적 검토가 있었다.⁶⁾

3) 최다운, 「성균관 현판 연구」, 『書藝學研究』 29, 한국서예학회, 2016; 권진호, 「한국 편액의 문화적 가치」, 『한국의 편액Ⅱ』, 2016; 유지복, 「경포호 누정 편액의 서예사적 가치」, 『인문과학연구』 49,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익수 외, 『삼성사 소장 고문헌·편액』, (재)고·양·부삼성사재단 2016; 홍기표, 『제주의 편액』, 제주문화원, 2016; 오창림,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耽羅文化』 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4) 김익수 외, 위의 책, (재)고·양·부삼성사재단, 2016.

5) 홍기표, 위의 책, 제주문화원, 2016.

6) 오창림, 앞의 논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현판과 편액의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유지복은 「경포호 누정 편액의 서예사적 가치」에서 편액의 유래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는데, “편액이란 나무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서 전각, 서원, 사찰, 누정 등의 문 위나 건물 벽 위에 걸어놓은 널빤지를 말한다.”⁷⁾라고 편액과 현판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다은은 「성균관 현판 연구」에서 “성균관에는 편액 8점, 주련 2건 8점, 명륜당 내 현판 39점, 존경각 내 현판 2점을 합하여 총 57점의 현판이 있다.”⁸⁾라고 하여 건물의 명칭을 편액, 시문이나 제영을 주련, 건물의 내력 또는 절목, 수칙 등을 기록한 기문을 적은 것을 현판으로 구분하였다. 권진호는 「한국 편액의 문화적 가치」에서 “…… ‘額’은 門扉위에 걸려 있는 평평한 나무를 말한다. 편액의 재료는 나무로 된 널빤지뿐만 아니라 종이나 비단도 사용되었다. 현판이란 용어는 편액과는 개념적으로나 의미상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나며 ‘懸額’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편액은 건물의 이름, 관목, 거기에 쓰인 글씨를 포괄하는 상징화된 개념으로 오늘날의 일상생활어로 쓰이는 현판보다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⁹⁾라고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

한편 사전적 의미의 현판은 “글씨·그림을 쓰거나 그리든지 또는 칼로 새긴 뒤에 문 위 또는 벽에 다는 널빤지”¹⁰⁾를 가리키고, 扁額은 “비단·종이·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거는 額子を 일컫는 말로 扁題”¹¹⁾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편액과 현판은 명확한 개념의 구분 없이 편의대로 호용하고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편액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漢나라 고조 6년(기원전 201)에 蕭何가 ‘蒼龍’, ‘白虎’라는 署書를 썼다¹²⁾는 기록이 있으며,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扁’은 ‘署’와 같다. ‘戶’와 ‘冊’을 따르며, ‘戶冊’은 관청의 대문에 쓰는 글자¹³⁾”라고 하였다.

7) 유지복, 「경포호 누정 편액의 서예사적 가치」, 『인문과학연구』 49,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6, 323쪽.

8) 최다은, 앞의 논문, 2016, 144쪽.

9) 권진호, 앞의 논문, 2016, 296쪽.

10)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9, 3713쪽.

11) 신기철·신용철, 위의 책, 1989, 3531쪽.

12) 琴河淵·吳采錦 엮음, 앞의 책, 711-712쪽, “蕭子良云 署書 漢高祖六年 蕭何所定 以題蒼龍白虎二闕.”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경덕왕이 재위 23년(709)에 白月山南寺를 창건한 뒤 미륵상을 조성하여 金堂과 講堂에 각각 봉안하고 그 편액을 ‘現身成道彌勒之殿’과 ‘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 한 기록¹⁴⁾을 편액의 효시로 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현판은 글씨나 그림을 새긴 널빤지라는 형식적인 면에 방점이 있으며, 편액은 현판보다 다양한 재료적 바탕위에 쓰인 글씨나 그림의 내용적인 면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편액은 扁題라고도 하듯이 1차적 예술품으로써 문학적·사상적 함의를 가진 서예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고, 현판은 1차적 예술품인 편액이나 識記·題詠 등이 書者·刻手·木工·畫工들의 손에 의해 널빤지에 새기고 테두리목을 두르고 문양이나 단청으로 장식 하는 등의 부차적 공정을 아우른 종합예술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근래에 조선시대 제주삼읍의 관아시설, 읍성 성곽의 성문과 문루, 삼향교 및 서원을 위시한 기타 명소의 건축물들을 옛 모습대로 복원했거나 그 과정에 있다. 이 연구는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편액현판의 복제 또는 복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현판의 기록이나 시문 등 사료적 가치에서 편액 글씨로의 서예사적 인식의 확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판의 현황 및 특징

제주지역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양식의 편액현판은 제주목관아 5점, 제주향교 5점, 정의향교 3점, 대정향교 4점, 김만덕기념관 1점을 합해서 18점이다.¹⁵⁾ 이들 현판의 편액서를 쓴 인물을 신분유형별로 구분하면 제주

13) 琴河淵·吳采錦 엮음, 『段玉裁注 說文解字 聲符辭典』, 日月山房, 2013, 711쪽, “扁署也. 從戶册. 戶册者 署門戶之文也”.

14) 『三國遺事』卷3, 塔像第四,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白月山兩聖成道記云(中略)天寶十四年乙未 新羅景德王即位 聞斯事 以丁酉歲 遣使創大伽藍 號白月山南寺 廣德二年 甲辰七月十五日寺成 更塑彌勒尊像 安於金堂 額曰現身成道彌勒之殿 又塑彌陀像 安於講堂 餘液不足 塗浴未周 故彌陀像亦有斑駁之痕 額曰現身成道無量壽殿”.

15) 18점의 편액현판 가운데 세 향교의 대성전·대성문 그리고 제주향교 명륜당과 대정향교 명륜당 편액현판은 서울 성균관의 현판을 탁본한 뒤에 번각한 것이며, 이를 포함하여 문헌에 존재하는 편액을 모두 합하면 70여종이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홍기표는

출신과 목민관 및 중앙관원 그리고 유배객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출신의 작품으로 3점이 남아있는데 고득종의 <홍화각>, 정상명의 정의향교 <명륜당>, 김용정의 제주향교 <계성사> 편액현판¹⁶⁾이 있다. 목민관의 글씨로는 관덕정 안의 조선후기의 목사로 부임했던 김영수의 <탐라형승>과 박선양의 <호남제일정>이 있고, 제주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중앙관원의 편액서로 조선전기 이산해의 <관덕정>과 조선 후기 이종우의 제주향교 <계성사>의 편액이 있다. 이 밖에 제주지역 세 향교의 대성전과 향교 외문인 대성문의 글씨는 한호의 글씨이고, 제주향교 명륜당 및 대정향교 명륜당의 현판의 경우 중국 송대의 학자 주희의 글씨인데, 이는 모두 성균관의 편액현판을 탁본하여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배객의 글씨로는 조선 후기의 김정희가 쓴 <은광연세>, <연회각>, <의문당> 등이 남아있다.¹⁷⁾ 이밖에 문헌에는 적객 권진웅이 1771년(영조 51) 3월에 대정현 창천리에 유배되어 ‘산수현’이라는 당호를 짓고 지명과 연계하여 ‘滄洲精舍’라고 편액한 기록 등은 있으나 아쉽게도 유물은 전하는 것이 없다.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는 관덕정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에 분포해 있었으며, 이미 탐라국시대부터 星主廳 등 주요 관아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1434년(世宗 16) 화재로 官府의 건물이 모두 없어진 뒤, 그 다음해인 1435년에 목관아의 골격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내내 중·개축이 이루어지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훼손되어 관덕정을 빼고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 1993년 3월 30일에 제주목 관아지 일대가 국가사적 제380호로 지정되면서 2002년 12월에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초석·기단석 등을 토대로 『탐라순력도』와 『탐라방영총람』 등 문헌을 참고하여 건축물을 복원하고 편액현판도 개수하여 달았다. 현재 제주목관아에는 유존건물 관덕정에 3점(관덕정, 탐라형승, 호남제일정), 복원된 건물 진해

‘제주지역의 고건축 중에 유존하거나 복원된 건물 27개소는 물론 문헌에 존재하는 미복원 건물 38개소를 포함한 총65개’의 편액을 소개하고 있다(홍기표,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16, 15쪽).

16) <계성사>현판은 오점이 편액한 현판이라는 설(홍기표, 앞의 책, 2016, 93쪽)이 있어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17) 김정희는 유배말기에 부임한 장인식목사와의 인연으로 다수의 편액(영혜사, 좌연각 등)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루(진해루, 탐라포정사), 우련당, 홍화각, 연희각, 망경루, 영주협당, 굴림당)에 11점의 편액현판이 걸려있는데, 미복원 건물 4채를 포함한 12채에 16개의 편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제주의 경우 제주향교는 대설위이며 정의향교와 대정향교는 소설위 향교이다. 대설위인 제주향교는 1392년(태조 1)에 창건되어 십여 차례 중건과 중·보수 및 이건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2년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대성전이 보물 제1902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림 1〉 대성전, 제주향교

현재 제주향교에 남아있는 편액현판의 경우 대성전과 대성문 그리고 명륜당은 서울의 성균관 현판을 번각한 것이다. <명륜당>현판을 제외하고는 제작시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대성전>(그림 1)이나 <대성문>의 현판은 언제 각을 하여 걸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성균관 현판의 제작 시기를 1601년~1605년으로 추정¹⁹⁾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제주의 경우 이보다 훨씬 후대에 번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성전>(그림 1)은 조선의 명필 석봉 한호의 필적이다. 방정하고 장중한 해서체로 쓰였다. 당시 서예의 흐름은 조선시대를 관통하던 송설체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퇴계의 송설체 일색의 편증을 비판한 이후 짚나라의古法을 따르는 추세였다. 하지만 진대의 고법에는 대자필법이 없었으므로 설암

18) 관덕정에는 한 건물에 3개의 편액현판이 걸려 있는 경우이고, 진해루는 이층 누각으로 탐라포정사의 현판과 위·아래층에 걸려 있다.

19) 최다은, 앞의 논문, 2016, 145쪽.

의 대자서 필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⁰⁾ 가로획의 수필부에 뭉툭한 형태가 바로 원대의 설암체 특징인데, 고려 공민왕 이후 송설체와 더불어 설암체가 조선의 전시대에 영향이 뻗쳐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향교 대성전과 대정향교의 대성전 역시 한호가 쓴 편액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당은 유교경전을 강학하던 공간으로, 『맹자』 「등문공」편에서 유래한 ‘명륜’은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이 모두 인륜을 밝힌다는 뜻이다.²¹⁾

상과 서와 학과 교를 세워서 백성을 가르칠 것이니 상은 기르는 것이요, 교는 가르치는 것이요, 서는 활을 쏘는 것입니다. 夏나라는 ‘校’라 하였고, 殷나라는 ‘序’라 하였고, 周나라는 ‘庠’이라 하였으며, 학은 곧 삼대가 같이 썼으니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면 소민은 아래에서 친할 것입니다.

제주향교의 명륜당 현판은 주희가 쓴 서울 성균관의 내부현판과 같은 것으로 1778년(정조 2) 황최언 목사가 탁본·번각하여 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²²⁾ 그리고 대정향교의 명륜당 현판은 현판좌측면에 1812년 대정현감 변경봉이 걸었다고 부기하고 있다. 한편 정의향교의 경우 주자의 글씨가 아닌 지역의 인사의 글씨를 달았는데 ‘동자 정상명’으로 낙관이 되어있어서 세간의 관심을 일으킨다. 향교의 출입문인 대성문도 세 향교 공히 한호의 필적의 편액현판을 게시하였다.

〈표 1〉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판²³⁾

구분	건물명	현판	서체	작가	제작시기	크기(cm)	비고
1	홍화각	홍화각	해서	고득중	1435	163×66	제주목
2	관덕정	관덕정	행해	이산해	1559~1562		제주목
3	관덕정	탐라형승	행서	김영수	1780		제주목
4	관덕정	호남제일정	해서	박선양	1882		제주목
5	연회각	연회각	행서	김정희	1848~1850	190×76	제주목

20) 최다운, 앞의 논문, 2016, 154쪽.

21) 『孟子』, 滕文公 三, “設爲庠序學校 以教之 庠者 養也 校者 教也 序者 射也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 明於上 小民 親於下”.

22) 홍기표,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16, 90쪽.

23) 제주출신 3인의 글씨가 3점, 목민관 2인의 글씨가 2점, 유배인 1인의 글씨가 3점, 기타 제주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4인의 글씨가 5종 10점이다.

6	대성전	대성전	해서	한호	?	216×99	제주향교
7	명륜당	명륜당	해서	주희	1778	216×74	제주향교
8	계성사	계성사	해서	김용징	1854	149×79	제주향교
9	계성사	계성사	해서	이종우	1854~1855	113×43	제주향교
10	대문	대성문	해서	한호	?		제주향교
11	대성전	대성전	해서	한호	?	216×99	정의향교
12	명륜당	명륜당	해서	정상명	1635		정의향교
13	대문	대성문	해서	한호	?		정의향교
14	대성전	대성전	해서	한호	?	216×99	대정향교
15	명륜당	명륜당	해서	주희	1812		대정향교
16	대문	대성문	해서	한호	?		대정향교
17	동 재	의문당	해서	김정희	1846	78×35	대정향교
18		은광연세	예서	김정희	1840	98×31	김만덕 기념관

앞서 언급한대로 제주지역에서 공공건물 이외의 조선시대 편액현판이 남아있는 예는 거의 없다. 이는 한반도의 경우 사찰이나 사대부가의 유물로 편액현판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관가나 일부 규모가 큰 사찰을 제외하면 대부분 초가집이었다는 점과 또한 반도와는 달리 누정문화가 거의 없었던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왕조교체기 및 端宗의 폐위에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입도한 제주지역의 문화지배층이라고 할 만한 선비들의 은둔자적 삶의 태도가 적잖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의 전통초가는 바람이 많은 환경 탓에 지붕이 낮고 처마에 풍채를 달아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판을 달만한 공간을 앗아버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지역에도 조선 초기에 몇몇 큰 사찰의 경우 현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말선초의 왕조교체기 佛宇의 훼손로 인해 석재유물만 유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찰의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반도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일주문에서 금강문, 천왕문을 지나 대웅전을 비롯한 사격을 제대로 갖춘 경우가 드물었으며,²⁴⁾ 대체로 한 건물에 불상과 산신 등을 모시는 인법당 형식의 소규모 사찰에서는 건축비용이나 기술자 확보 등의 문제로

24) 홍병화, 『제주도 사찰건축의 역사와 실체에 대한 모색』, 『제주사찰 건축물의 역사와 실체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사단법인탐라성보문화원, 2017, 19쪽.

인하여 대부분 초가지붕이었을 것²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은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편액현판이 대부분 공공건축물에 한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이는 현판양식의 단순함과 서체에 있어서도 방정하고 단엄한 해서체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편액현판은 시기별로 양식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조선 전기의 현판인 <홍화각> 및 <관덕정> 두점 모두 흰색 바탕에 검은 색 글씨에 테두리목이 없는 민현판의 양식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 후기의 작품들에서 대부분 테두리목을 두르고 있다. 특히 김정희의 편액현판에서는 테두리부분에 꽃문양장식을 시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양식적 특징이 시대적 특징뿐만 아니라 제작자의 개인적 취향 등의 영향²⁶⁾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판목재는 제주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구실잣밤나무·산벚나무·느티나무·불가시나무·비자나무 등이 이용되었는데 이 또한 반도의 경우 소나무가 사용되는 예와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Ⅲ. 조선시대 제주지역 주요 편액현판

<홍화각>(그림 2)은 조선 초기의 제주목사의 집무실로 쓰던 상아동헌의 편액현판이다. <홍화각> 현판 형태는 바닥판재만으로 이루어졌고, 글자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양각기법으로 새기고 바탕은 흰색에 글씨는 검게 칠하였다. 크기는 가로 163cm, 세로 66cm이다.

<홍화각> 현판은 대부분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조선시대 초기 현판의 제작기법과 서체 그리고 고득중 연구에 매우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1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가

25) 지태승, 「제주지역 사찰 전각의 양식상 고찰」, 『제주사찰 건축물의 역사와 실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사단법인탐라성보문화원, 2017, 48쪽.

26) “사역은 어떻게 해야 기일 안에 과연 끝마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많다. 편액을 새기는 일도 당장 시도해야 하는데, 이 곳에 각을 잘하는 이가 근래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이것도 걱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이전 사람만 못하다네(寺役問果何以了當耶 爲之念念 扁刻 當圖之 而此中善刻者 間已化去是切悶 然非無他手 皆不及前手耳(김정희, 『완당전집』권3, 1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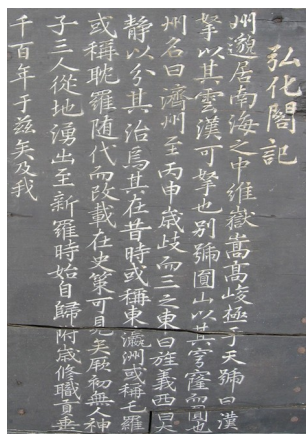
〈그림 2〉 홍화각, 三姓祠

문화재 지정을 앞뒤 지난 2001년 8월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소재은행에 의뢰해 방사성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1326~1356년 무렵의 비자나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1435년 홍화각 초창 당시의 현판으로 현존하는 국내 현판 중 최고로 추정하고 있다.²⁷⁾ 홍화각은 제주목관아가 불에 타 없어지자 1435년(세종 17) 안무사 崔海山에 의해 창건된 이후 1648년(인조 26) 목사 金汝水, 1772년(영조 48) 목사 梁世絢에 의한 2차례의 중수, 그리고 1829년(순조 29) 목사 李行敎에 의해 개건이 이루어졌으며, 1940년 여름 일제에 의해 철폐되었던 것을 1999년 복원설계를 시작하여 2002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홍화각>의 ‘弘化’는 임금의 교화를 넓힌다는 뜻이다. 안무사 최해산(1380-1443)의 제안을 받은 고득중(1388-1452)은 「홍화각기」에 누각의 명명에 관한 내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공이 하루는 각에 올라 고을 원로들을 소집하고 낙성을 하면서 또한 누각의 이름을 지으려 하였다. 한 원로가 말하기를, “제주는 고을 북쪽에 큰 바다를 접해있어 넓고 넓어서 천리가 한 눈에 들어오고, 남쪽에는 높은 산을 마주하여 울창한 푸름은 사시사철 한결같습니다. 겨울에도 심한 추위가 없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많으며, 집집마다 굴과 유자, 어디에나 화류마를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떠도는 구름의 형상과 달빛과 이슬의 광채는 아침저녁으로 변화하여 그 모습이 천만갈래입니다. 이곳으로 왕명을 받은 자들은 여기에 오를 것이고 여기에서 쉴 것입니다. 푸른 산 빛과 파도소리는 책상머리에서 나누어지고 기이한 풀꽃들은 고개를 돌리면 어디에나 무리지어 있습니다. 예전에 누각이 있어서 ‘만경’이라고 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다행히 이제 다시 누각을 지었으니 마땅히 ‘만경’이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하니, 공께서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각을 세운 것은 경치를 완상하

27)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156>.



〈그림 3〉 홍화각기(부분), 三姓祠

가 한번 이 ‘각’에 오르면 노름에 빠지지 않고 제 맘대로 하고자 하지 않아서, 위임된 책무를 다하며 늘 왕의 교화를 넓히고 백성의 뜻에 통달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주나라의 다스림이 오늘날에 다시 구현될 수 있을 것이요, 제주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음이 무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홍화’로써 이 ‘각’의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²⁸⁾

위의 기록에 의하면 ‘홍화각’이 소실되기 이전에는 ‘萬景樓’였으며, 여기에 오르면 산과 바다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당초에 이층 누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홍화각의 편액을 쓴 高得宗(1388-1452)은 제주출신으로 字는 子傳, 號는 靈谷, 圓山이다. 조선 세종대의 무를 검비한 문신으로, 당시 예조참의를

기 위해도 아니며, 놀이나 관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옛날 문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周公은 내치를 담당하고 召公은 외치를 맡아서 교화가 사람들에 미치는 것이 바람이 움직이듯 했습니다. 점점 교화의 은혜가 이루어지니 바야흐로 이 사람들은 덕화에 고무되어 그 기질이 바뀌게 되었으니, 어찌 두 분의 도움이 ‘홍화’를 이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군께서 위에 계시고 대신들이 보필하며 대신들이 동료로서 공손히 협동하며, 어진 사람을 구하여 지방을 나누어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은혜가 다하지 못하고 다스림과 교화가 흡족하지 못한 것은 위임이 혹 마땅한 사람이 아니어서 봉행함이 그 이치를 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릇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 가진 자

28) 『靈谷遺稿』, 弘化閣記, “公一日出坐閣上 召集鄉中父老 以落其成 且圖所以名之也 或有言曰 濟爲州北枕巨海 浩浩蕩蕩 一目千里 南對崇岳 鬱鬱蒼蒼 四時一色 冬無苦寒 夏多涼風 家家橘柚 處處驪驪 風雲之狀 月露之形 朝暮變化 千萬其態 而承命于茲者 登於斯 休於斯 山翠濤聲 常分於几案之上 奇卉異草 悉萃乎 顧眄之間 古有樓而名 萬景者此也 幸今有閣 宜復萬景之名 公曰不然 予之建閣 非爲翫景也 非爲游觀也 昔文王之時 周公治於內 召公治於外 化之及人 如風之動 漸之被之暨之 而當世之人 莫不鼓舞於德化 變易其氣質 豈非二公贊襄弘 化之致歟…凡分憂者 日登此閣 無佚遊無縱欲 思盡委任之責 常以弘王化達民情爲心 則周之治 可復見於今日 而濟之民 當受福於無窮矣 然則蓋以弘化 名此閣乎”.

그만두고 낙향하여 안무사 최해산을 도와 제주목관아 재건에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고 있었다. 고득중은 당대의 문장가이자 명필로 『해동명적』²⁹⁾에 이름이 올라있으며, 『槿域書畫徵』에서 오세창은 고득중을 평하여 “그의 문필이 모두 고법에 뽐진하다”³⁰⁾고 했으며, 또한 김석익(1885-1956)은 “우리 고을에서 글씨를 잘 쓰는 이는 판윤 고득중이 제일이다. ‘홍화각’이라 쓴 석자는 필력이 노련하고 굳세며, 예스럽고 기이하다. 지금까지 남아있다.(그림 2)³¹⁾”라고 하여 고득중을 제주서예의 祖宗으로 삼았다.

고득중은 당대 서예계를 풍미했던 송설체의 흐름을 좇기 보다는 위·진의 고법을 고수했으며,³²⁾ 또한 당시 편액의 흐름은 설암체가 대세였음에도, <홍화각> 석자의 체세를 보면 <홍화각기>(그림 3)의 소자서의 필세와 변함없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글자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붓을 운필하는 능력이 탁월했음을 알 수가 있다.

<관덕정>(그림 4)은 민현판이며,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돌을새김 되어있다. ‘射場’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속도감으로 행서기운이 넘치는 해서 편액이다. <홍화각>현판과 더불어 조선 전기의 소박한 현판양식을 보이고 있다.

관덕정 창건당시 기문에 ‘동지중추원사 고득중의 요청으로 안평대군이용이 제액하였다’³³⁾고 한 기록을 보면 초창 현판은 안평대군의 편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상헌의 『남사록』에 의하면 ‘안평대군의 편액현판은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지금 걸려 있는 것은 鵝溪의 필적이다’³⁴⁾고 신석조의 기문에 부주를 달아 놓았다.

29) 『海東名跡』은 조선 중종 때의 서예가이며 문신인 申公濟(1469~1536)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역대명가 45인의 글씨를 모아서 석각한 것을 탁본하여 전·후집 2책으로 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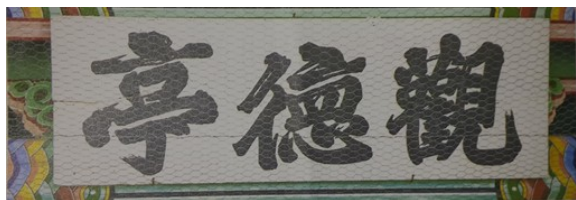
30) 吳世昌, 『國譯 槿域書畫徵』 上, 東洋古典學會, 시공사, 1998, 186쪽, “常帶修文殿提學하니 文筆이 皆遍古하다(海東號譜)筆跡摸刊(海東名跡(草露貫珠))”.

31) 金錫翼, 『心齋集』, 破閑錄 上, “我州善書 高判尹得宗爲第一 所書弘化閣三字 蒼勁古奇 至今猶存”. 김석익은 제주출신의 향토사학자요, 서예가이다. 호는 心齋 또는 一笑道人, 海上佚史이다.

32) 오창림,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耽羅文化』 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259쪽.

33) 金尙憲, 『南槎錄』, “題額則余已請于安平大君以責之”.

34) 金尙憲, 위의 책, “又宗英之寶翰, 匪解堂額字失於火 今之所揭乃鵝溪筆跡也 又欲記其事以圖不朽者”.



〈그림 4〉 관덕정, 관덕정



〈그림 5〉 옥산서원, 옥산서원

김상헌의 기록을 토대로 현재의 <관덕정>과 李山海(1539-1609)가 1573년(선조 6)에 쓴 사액현판인 <옥산서원>(그림 5)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필세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가령 <관덕정>에서 ‘德’자의 제 4획(ㄴ)과 <옥산서원>에서 ‘院’자의 제 7획(元)이 오른쪽 위를 향하여 붓을 쳐들고 거둔 필세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관덕정>보다 <옥산서원>에서 획질의 묵직함이라든지, 위의 예를 제외한 가로획의 수필부에서 아래로 붓을 내려서 거두는 등 여유와 원숙한 필세를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관덕정>의 편액이 보다 이른 시기에 쓴 것으로 보인다.³⁵⁾ 한편 1602년(선조 25) 김상헌의 『남사록』 이후 편찬된 1653년(효종 4) 이원진의 『탐라지』³⁶⁾나 1843년(헌종 9) 이원조의 『탐라지초본』³⁷⁾ 그리고 1953년 답수계의 『증

35) 이산해는 6세에 이미 초서 글씨 신동으로 이름났으며, 약관(1562, 명종 17)에 홍문관 正字의 신분으로 어전에서 대자글씨를 써 보이기도 했다(『명종실록』 권28, 명종 17년 3월 5일조, “前者禮曹抄啓能書人, 牙善君 魚季瑄、同知李渾、正字李山海、都事申孝仲、奉事申孝武、生員成子濟、進士李研·沈仁謙、幼學閔起貞九人。竝速招來入殿, 令書楷、草大字于唐紙”).

36) 李元鎮, 『耽羅志』, 樓亭, “觀德亭 在弘化閣南 辛淑晴建 成化庚子 牧使 梁瓚 重修 安平大君 題額”.

37) 李源祚, 『耽羅志草本』, 觀德亭, “在弘化閣南 世宗 戊辰 牧使 辛淑晴 創建 板額 安平大君筆”.

보탐라지』³⁸⁾ 등에는 여전히 ‘관덕정’ 편액을 안평대군이 쓴 것을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후대의 사가들이 『남사록』의 내용을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덕정은 제주목 병사들의 활쏘기 훈련을 하는 곳으로, ‘觀德’은 『禮記』 「射義」편에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³⁹⁾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관덕정은 1448년(세종 30) 안무사 신숙청이 창건한 후 1480년(성종 11)에 목사 양찬에 의해서 중수되었다. 이 때 쓴 徐居正의 중수기에 의하면 관덕정은 “이亭을 만든 것은 놀이나 관광이 아니라 본래 설치함이 武閣을 위한 것인 즉, 지금부터 제주의 사람은 날마다 이에 射習하되 과녁을 쏘뿐만 아니라 騎射를 익힐 것이요, 기사뿐만 아니라 戰陣法을 익힘으로써 賊變이 있을 때는 삼읍 백성들이 常山之勢로 수군, 육군, 보병, 기병이 각각 나와서 사력을 다하여 싸워 적군의 목을 베어 이로써 부모처자를 구하고, 이로써 한 고을을 보전하며, 이로써 나라의 간성이 되어 역사에 功名을 세운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⁴⁰⁾라고 하여 그 세운 바를 펼쳐 보였다.

그 후 1559년(명종 14), 1690년(숙종 16), 1753년(영종 29), 1779년(정조 2), 1833년(순조 33), 1851년(철종 2), 1882년(고종 19) 방어사 박선양에 의해 보수되는 등 총 7차에 걸쳐 중수하였고, 이후 1924년 일본인 島司 前田善次가 보수하면서 15척이나 되는 곡선의 처마를 2척이나 줄여 보수하니 전통적인 멋과 원형은 사라져 버렸다. 해방 후 1948년 9월에 관덕정은 제주도의 임시도청으로, 1952년도에는 도의회 의사당으로, 북제주군청의 임시청사로, 그리고 1956년에는 미공보원 상설 문화원으로 사용되는 등 순탄치 못한 역정을 견디어 오다가 1959년 국보 제478호로 지정되었고, 1963년 보물 제322호로 재지정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8) 淡水契, 『增補耽羅志』, 觀德亭, “濟州邑 三徒里 布政門外에 在하니 卽訓練士卒所接處라. 3781(檀紀)年 戊辰 世宗 十年에 牧使 辛淑晴이 創建하고 安平大君이 題額하다”.

39) 『禮記』, 射義 46, “古者 諸侯之射也 必先行燕禮 卿大夫士之射也 必先行鄉飲酒之禮 故燕禮者 所以明君臣之義也 鄉飲酒之禮者 所以明長幼之序也 故射者 進退周還 必中 禮內志正外體直 然後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 然後可以言中 可以觀德行矣”.

40) 『增補耽羅志』, 樓亭條, 觀德亭, 徐居正重修記, “況是亭之作 非爲遊觀而設 本爲閱武也 則自今州之人 日日習射于茲 非徒騎射于以習騎射 非徒騎射于而習戰陣 及有賊變 舉三邑之衆 作常山之勢 水陸步騎 各出死力 爭斬賊首 以之救父母妻子 以之保一邑 以之爲國干城 樹功名於竹帛 豈不幸哉”.



〈그림 6〉명륜당, 정의향교

관덕정에는 관덕정 현판 외에 건물 내부에 2점의 현판이 더 걸려있는데 탐라형 승과 호남제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실내 벽면에 그려져 있는 작자 미상인 벽화 또한 상당히 격조 높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내용은 杜甫의 醉過楊州橋

滿橋·商山四皓·赤壁大捷圖·大狩獵圖·陣中西城彈琴圖·鴻門宴·十長生圖 등이다.

정의향교의 <명륜당>(그림 6) 편액현판은 돌을새김으로 황적색의 바탕에 흰색으로 칠을 하였다. 검은 색의 테두리목이 둘러져 있는데 현판아래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판 좌측에 “1635년(인조 13) 동자 정상명의 글씨[崇禎八年正月童子鄭尙明書]”라고 쓰여 있다. 방정하고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필세가 동자의 필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童子가 필자의 雅號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⁴¹⁾ 정상명(생몰미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다만 “정상명은 인조 연간에 안좌리(현, 표선면 가시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민하고 글씨를 잘 썼다.”⁴²⁾라고 알려져 있어서 실제 정의향교에 다니던 학동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의향교는 창건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나, 현의 설치가 1416년(태종 16)이므로 이 때에 향교도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성전 현판은 제주향교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성균관 현판을 탁본하여 번각한 것으로 한호의 필적이다.

<耽羅形勝>(그림 7)은 관덕정의 내부에 걸려있는 목사 김영수⁴³⁾(1716-1786)의 행서필적이다. 협서에 “송정기원후 삼 경자년(1780) 겨울에 영주주인 65세 늙은이 화산인 김영수 취필[崇禎紀元後三庚子冬瀛洲主人六旬五歲翁

41) 홍기표,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16, 141쪽.

42) 오문복,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186쪽.

43) 1778년(정조 2) 남도병마절도사로 재임중 같은 해 12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781년 이임함.



〈그림 7〉 탐라형승, 관덕정

花山人金永綬醉筆”이라고 되어 있듯이 호방한 무인의 운치를 한껏 드러냈다. 상당히 큰 글씨임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형세에서, 신선이 사는 고을의 주인답게 획과 획, 글자와 글자 사이에 저촉됨이 없이 활달 자재한 운필의 묘를 느낄 수 있다. 제주도 편액현판의 ‘백미’라 할만하다. 탐라형승의 ‘형승’은 뛰어난 지세나 풍경을 뜻하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형세를 갖춘 곳이라는 뜻이다.

한편 제주의 명승지 절벽에는 김영수가 남긴 필적이 적지 않다. 방선문에 이르러 ‘신선을 불렀다.’고 하는 ‘환선대’(그림 8)⁴⁴⁾라는 초서 마애명 역시 그의 호방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걸작이라 할만하다. 그 옆에다 절구 한수를 지어 같이 새겨놓았으니 다음과 같다.

별난 골짜기 천지는 아름답고 [別壑乾坤大]
 석문에 들어서니 세월은 한가롭네 [石門日月閑]
 세상에 특별한 곳이 없다고 말하지 마소 [莫云無特地]
 진짜 신령한 산이 있다오 [眞箇有神山]
 꽃은 시들어도 봄 경치는 완연하고 [花老三春色]
 바위굴은 태고의 모습 그대로 [岩竇太古顏]
 뚜르르 뚜르르 학 울음 들리니 [戛然鳴鶴至]
 내가 선 이곳이 선계임을 알겠네 [知是在仙間]

<恩光衍世>(그림 9)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사가의 편액현판으로 김정희⁴⁵⁾(1786-1856)의 필적이다. 김만덕의 행적을 기리듯 부드러운데 푸근

44) 오문복 외, 『제주도 마애명』, 제주도, 2000, 49쪽.

45) 추사는 1840년(헌종 6) 윤상도의 옥사에 연좌되어 제주에 정배된 8년 3개월과 해배 후 3개월여 동안 많은 필적을 남겼다. 세한도와 불이선란 등의 걸작이 제주 유배시절의



〈그림 8〉 환선대



〈그림 9〉 은광연세, 김만덕기념관



〈그림 10〉 의문당, 제주추사관

한 예서체로 쓰였고, 그 내력을 좌측에 반듯한 해서로 협서하여 ‘완당’이란 도장으로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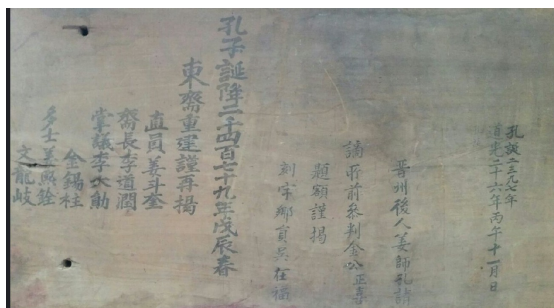
1840년에 쓴 것으로 크기는 가로 98cm, 세로 31cm 이다. 현재 김만덕기념관에 소장 전시되어있다. 당시 제주에 유배 온 김정희가 제주사람들 입에서 대기근에 처한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놓은 의인 김만덕을 세상 떠난 지 30년이 넘도록 칭송이 이어지는 것을 듣고, 그 선행을 기려 김만덕 가문 3대손에게 써준 것이다.⁴⁶⁾

<의문당>(그림 10)은 추사 김정희의 친필 편액으로 대정향교 명륜당 동재에 걸렸던 현판이다. 현재 제주추사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고, 대정향교 동재에는 복제품이 걸려있다. 현판의 크기는 가로 78cm, 세로 35cm이며 재료는 구실잣밤나무로 추정된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양각되었으며, 테두리에는 연꽃문양이 그려져 있다.

현판 뒷면(그림 11)에는 편액을 부탁하고 현판을 제작한 자세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의 것으로 보이는 기록에는 일제강점기 당시(1928년) 향교의 직임과 성명이 열서되어 있다.⁴⁷⁾

산물이다.

46) http://www.jejusori.net/?re_page=1&mod=news&act=articleView&re_total=1&idno=79884.



〈그림 11〉의문당 뒷면, 제주추사관

1846년 11월 진주후인 강사공은 유배중인 전참판 김정희공께 제액을 부탁하여 삼가 걸었다. 각자 향원 오재복, 1928년 봄 동제를 중건하여 삼가 다시 걸었다.

『論語』「季氏」편에 군자가 가져야 할 아홉 가지 생각 가운데 ‘의심이 들면 물어야 할 것을 생각함’에서 ‘의문당’이라 명명하였다.⁴⁸⁾

한편, 대정향교는 현의 설치가 1416년(태종 16)이므로 이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대성전 현판과 명륜당 현판 역시 서울의 성균관 현판과 동일한 번각이다. 명륜당은 변경봉현감이 번각하여 걸었다는 협서가 현판 좌측에 “자양의 주부자께서 쓰신 글씨로 1812년 9월 9일 대정현감 변경봉은 삼가 걸다.[紫陽朱夫子手筆 崇禎紀元後四壬申重九日大靜縣監邊景鵬謹揭]”라고 적혀 있다.

<연회각>(그림 12) 편액현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의 음양각으로 새겼으며, 테두리에 다시 검은 바탕색을 입히고 흰색으로 당초문을 그려 넣었다. 재질은 구실잣밤나무로 추정되며 테두리목으로 마감하였다. 현판의 크기는 가로190cm, 세로 76cm이다.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청을 건축하면서 헐리는 과정에 외부로 유출되었다가 최근 제주시에서 매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글씨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으로 추정⁴⁹⁾되는데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 수

47) “道光二十六年 丙午 十一月 日 晉州後人 姜師孔 請 謫所 前參判 金公正喜 題額謹揭 刻字 鄉貢 吳在福 孔子誕降二千四百七十九年戊辰春東齋重建謹再揭”.

48) 『論語』季氏, “孔子曰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49) ‘연회각’ 현판을 연봉 홍종시(1857-1936)의 작품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주지하다



〈그림 12〉 연회각, 김정희필, 제주목관아

있다. 우선, 필체의 유사성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같은 시기 추사의 작품 <의문당>의 현판양식 특징인 테두리문양과 비슷한 문양장식⁵⁰⁾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1848년 3월 제주목사로 도입한 張寅植과 김정희의 친분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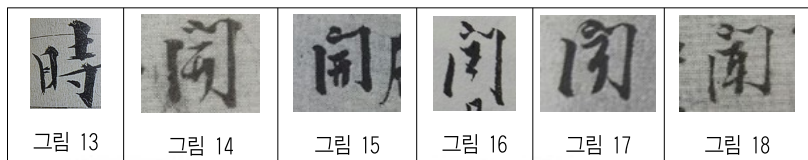
시피 홍종시는 추사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1857년 순조 때 해서로 이름난 홍범효의 증손으로 태어나 한말 향교의 도훈장을 지냈고, 일제강점기에는 제주읍장을 지낸 인물로 평생 추사체를 즐겨 썼으며, 추사의 고죽 소치 허련과의 교분도 두터웠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연회각’과 관련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홍종시는 1894년 제주관찰부의 주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제주읍장을 지낸 분으로서, 일제에 의해 제주목이 훼손될 때를 당하여, 고득종의 글씨인 ‘홍화각’ 현판의 경우 삼성사 재단에 귀속 소장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연회각’ 현판이 만약 홍종시 자신의 글씨였다면 남의 수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망기’하였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필자의 과문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세간에 전하는 『연농선생유묵집』에 등재된 글씨에서 ‘연회각’의 획질과 유사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2015년 8월 23일 KBS 1TV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제주시편에서 당시 김영복 감정위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제주읍장을 지낸 분으로 당시 추사체를 잘 쓰던 연농 홍종시의 작품으로 추정”한 바 있다.

50) 혹자는 문양장식의 유사성으로 추사 글씨의 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필자는 현판양식이 큰 틀에서 제작시기에 따라 비슷하게 변화할 수 있으나, 같은 지역에서조차 가문의 특수성이나 편액서자의 주문이 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았다. 추사체 연구가인 이봉호는 1994년 ‘의문당’ 현판의 연화문을 추사가 직접 그렸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51) 장인식은 1848년(무신, 헌종 14) 3월에 도입하여 1850년(경술, 철종1) 6월에 이임하는 동안 도민을 위한 선정을 많이 베풀어, 도내에 남아있는 선정비가 윤구동 목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기가 전해지고 있다. 목사 겸방어사로 부임한 장인식은 자신의 부임소식과 함께 선물을 보냈고, 원당은 반가움과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등 『완당선생전집』에 실려 있는 장인식에게 보낸 편지가 20통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상호 각별하게 지내는

을 들 수 있다.

우선 김정희 유배시절의 편지글이나 새한도 발문의 필획에서 연회각의 필획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時>(그림 13)의 날일 변의 右上角의 필압이 <연회각>(그림 12)의 ‘曦’자 날일변의 우상각의 필압과 유사하며, <開>(그림 14, 15)·<聞>(그림 16, 17, 18)에서 ‘門’자의 필획 순서라든지 오른쪽 위의 필압이 유사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현판 양식의 유사한 특징으로 김정희가 대정향교에 써준 <의문당> 현판테두리에 단청을 한 점을 들 수 있겠는데, <연회각> 현판에서도 이러한 양식적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김정희의 작품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인식과 남다른 친교⁵²⁾가 있었던 김정희는 장인식이 목사로 도임하는 해 12월 6일에 9년의 유배에서 풀려났음에도 바로 섬을 떠나지 않았고, 이듬해 2월 15일이 되어서야 대정을 떠나 제주로 향했으며 제주에서 10일을 더 머물다 2월 26일야야 화북포구에서 배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⁵³⁾ 따라서 <연회각> 편액현판은 해배된 후 3개월여 체류하면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배중에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유배 중에 썼다

사이임을 알 수 있다.

52) 장인식은 記文의 초고를 김정희에게 보내어 윤필을 청한 사실이나, 여타의 편액의 명명
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佐演閣’ 등의 편액을 써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글이
보인다(『阮堂全集』 卷之4, 書牘, 21쪽). 현재 오현단에 남아있는 굴림서원묘정비기의
경우도 추사의 침삭의 흔적이 편지에 남아있으며, ‘굴림서원묘정비기’의 말미에 ‘玉山
後學 張寅植 述’이라고 적혀있는데, 옥산서원은 회재선생을 배향한 서원으로 선조 때
아계 이산해의 글씨로 사액현판이 내려졌는데 실화로 불에 타고, 현종 때에 추사 김정
희의 글씨로 사액현판이 다시 내려졌다. 이 때가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되기 바로 전해
의 일이다.

53) 국립중앙박물관, 『秋史 김정희: 學藝 일치의 경지』, 통천문화사, 2006, 270쪽.

면 장인식과의 간찰교류에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배 후에 썼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서체는 행서기운이 가미된 단엄한 절제미가 돋보이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가 넓고 아래로 약간 좁아지는 듯한 필세는 추사체 특유의 묘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 유배의 후기에 추사체의 파격이 무르익어가는 시기임에도 제주목의 ‘정창’이라는 성격을 의식한 듯, 글씨의 용처에 따라 수시처변하는 書寫에서 서사자 김정희의 성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연희각’은 조선시대 후기에 제주목 관아의 중심건물이다. 조선 초기에는 상아동헌이 ‘홍화각’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연희각’으로 바뀌었는데, ‘연희각’이 언제 누가 창건하였고 누가 현판의 편액을 썼는지 자세하지 않다. 다만 ‘연희각’ 창건이나 중수에 관한 연원에 대해서는 이원진의 『탐라지』에 제주목사 심연과 이원진의 시 2편이 수록되어 있는 점을 들어 목사 심연이 재임했던 1638년(인조 16) 이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⁵⁴⁾하고 있을 뿐이다.

1841년(신축, 헌종 7) 제주목사 겸방어사로 부임한 이원조는 「延曦閣記」에서 ‘연희’라 편액한 뜻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풀어쓰고 있다.

“새벽에 앉아 집무를 보려할 때) 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온통 붉고 영롱한 햇빛에 마주치게 되면 일찍이 성연한 깨달음과 송연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두워 보이지 않던 것이 모두 드러나서 나의 욕망과 사념을 깨끗이 씻어주고 뜻과 생각을 계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때문에 자주 이 시간에 힘을 얻게 된다. 앞 사람이 이름을 붙인 뜻이 과연 여기에서 취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마도 경계에 즉하여 부합되는 것이 내 마음에 묵연히 들어맞는 것을 보면, 이는 평범하게 제약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천리의 넓은 바다는 서울과 사이를 멀게 하여 매일 밤마다 임금의 계신곳을 그리워함은 소동파가 해남에서 문득 상서로운 구름이 태양을 받들어 보고 황홀함이 마치 지척에 황제를 모신 듯 하였다는 것에 다를바 없다. 아~ 나라의 원로들이 바다를 점쳐 임금의 덕화를 축원한다. 당의 이름을 ‘연희’로 한 것 또한 외직에 임한 신하가 임금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글을 써서 벽에 걸어 둔다.”⁵⁵⁾

54) 홍기표,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16, 33쪽.

55) 李源祚, 『耽羅錄』, 延曦閣記, “而日光之穿漏 適與之相會 則未嘗不 惺然而悟 悚然而懼 點檢方寸 幽隱畢露 所以蕩滌其查滓 助發其志思者 多於此時得力 未知前人命名之義 果有取於是 而其爲符合於卽境 默契於吾心 則非尋常題額之此也 況重溟千里 距京師絕遠 每夜瓊樓之戀 無異於子瞻之海南 而忽見祥雲捧日 恍若咫尺天臨 聊與國之黃

이처럼 州牧의 政廳으로써 명명이 실질에 부합한다는 상찬을 하면서도 ‘연회각기’ 첫머리에 “연회각은 옛 기문이 없어 언제 세웠는지 자세하게 밝힐 수가 없다. 현판의 편액도 누가 명명했고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한다.”⁵⁶⁾라고 하고 있다. 기문의 내용대로라면 이원조 목사가 도입했을 당시에는 아마도 <연회각>(그림 11)과 다른 현판이 걸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성사는 문묘 대성전에 봉안되는 5성의 先考位牌를 봉안하는 곳으로, 계성사의 향사는 석전제 전날 밤에 제사하였다. 성균관 계성사의 경우 광복 후 성균관대학교를 지으면서 헐리고 향사의 예도 폐하였고, 이밖에 나주향교와 개성 성균관에도 계성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주향교와 제주향교에만 남아있다.⁵⁷⁾



〈그림 19〉 계성사, 제주향교

제주향교 계성사는 1854년(철종 5) 목사 목인배에 의해 창건되었다. 건축의 평면형식은 5칸으로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2개의 <계성사> 편액현판 걸려 있다. 외부 처마에는 김용징(1809~1890)의 글씨로 알려져 있고, 회랑 별관은 이종우(1801~?)⁵⁸⁾의 글씨

이다. 김용징의 편액현판(그림 19)은 판재 석장을 이어 붙인 흑색바닥판재에 돌을새김을 하고 글씨는 흰색으로 칠하였다. 크기는 가로 149cm, 세로 79cm

齋 占海而祝聖 是堂之名 以延曦 亦可以表外臣葵藿之忱 遂書而揭之壁”.

56) 李源祚, 『耽羅錄』, 延曦閣記, “延曦閣舊無記 建置年月不可詳 板額亦未知誰所命名誰所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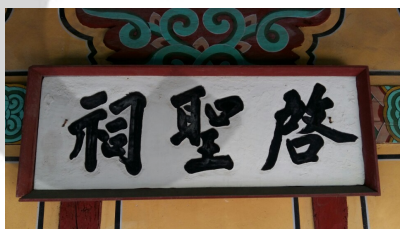
57) 박왕희, 『한국의 향교 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215쪽.

58) 이종우는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로 호는 石農, 시호는 文憲이다. 1851년(철종 2)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1853년 부사과·예방승지, 1856년 강원도관찰사, 1859년 우참찬·이조판서를 지냈다. 1860년 판의금부사, 이어 병조판서, 1862년 함경도관찰사로 있다가 함흥민란으로 파면되었다. 시문과 서화에 뛰어났고, 글씨는 독특한 필체를 이루어 세칭 石農體라 한다. 그의 행서나 초서는 신위와 김정희의 필법이 어우러진 글씨로 필력이 있으며 짜임새도 뛰어나다. 그림은 산수화를 잘하였다. 금석문으로 강원도 삼척의 〈山陽書院廟庭碑〉가 있다(이종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5932).

이다. 현판양식은 테두리에 요철형태의 斜角목재를 덧대어 사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듯하다. 김용징은 제주 납읍 출신으로 자는 윤경, 호는 정현이다. 1832년(순조 32) 전주에서 승보시에 합격하고, 1838년(헌종 4)에 제주의 승보시에 합격하였다. 또 1843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진사가 되었다. 도내의 3향교의 교수를 두루 거치면서 훈학에 힘썼으며 글씨에도 능하여 제주의 4명필에 꼽힌다. 한편 김석익은 그를 제주의 4대명필로 거명했으면서도 <계성사>에 대하여 다소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고을에 글씨 잘 쓰는 이는 판윤 고득종이 제일이다. ‘홍화각’이라 쓴 세 글자는 창연하고 굳세며, 고아하고 기이하여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생원 김양필이 그 다음이 되고, 또 그다음이 생원 오점·진사 김용징이다. 모두 해서의 모범으로 칭송되었으며, 오점은 특히 금석서에 뛰어났다. 김용징에 대해서 추사 김정희가 유배왔을 때 또한 칭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가 쓴 ‘계성사’ 글자를 보면 연미하고 유약하여 보아줄 수가 없다”⁵⁹⁾

이종우필적의 편액현판(그림 20)은 계성사 낭간 벽면에 걸려있는데 바깥 현판과는 반대로 흰색바닥판재에 글씨를 검은색으로 칠하였고 민무늬바탕에 사각테두리목이 둘러있다. 크기는 가로 113cm, 세로 43cm이며 이 현판에는 3.7cm의 정사각형 낙관도장이 찍혀있으며, 이름은 음각으로 호는 양각으로 새겨져있다.



〈그림 20〉 계성사, 제주향교

이종우의 현판이 어떤 연유로 걸리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종우가 예방승지로 있을 때의 글씨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계성사 낙성에 맞추어 현판을 걸어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정의 사액이 늦어지게 되면서 당시 향교의 교수로 있던 김용징의 편액을 먼저 걸어놓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

59) 金錫翼, 『心齋集』, 破閑錄 上, “我州善書 高判尹得宗爲第一 所書弘化閣三字 蒼勁古奇 至今猶存 金生員良弼爲其次 又其次吳生員需金進士龍徵也 俱以楷範稱 而吳尤長於金石書 金則金秋史謫居時亦稱詡云 然今觀其書啓聖祠三字柔脆不足觀矣”.

해 본다.

<호남제일정>(그림 21)은 관덕정 안에 걸려 있는 현판이다. ‘호남제일정’은 제주목사 박선양⁶⁰⁾의 65세 되는 1882년(고종 19) 10월에 쓴 것으로 단아하고 방정한 해서체의 편액이다. 흰 바탕에 검은 색의 글씨로 왼쪽에는 ‘壬午十月知牧朴善陽時年六旬五’라고 낙관되어 있다. 당시 제주목이 전라도에 속해있었으므로 관덕정은 호남지역에서 가장 큰 정자라는 뜻으로 제액한 것이다.



〈그림 21〉 호남제일정. 관덕정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제주지역 편액현판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주요 편액현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편액현판은 1점을 제외하면 모두 공공건축물의 것으로, 18점의 편액가운데 제주출신의 작품이 3점, 목민관 및 중앙관료의 작품이 4점, 유배객의 작품이 3점, 기타 향교관련 번각작품이 8점이 전해지고 있다.

<홍화각>은 당대 명필의 반열에 올랐던 고득종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현판 중에서 현존 최고의 현판으로, 또한 제주서예의 조종으로서 제주에 남아 있는 최초의 필적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리고 6세에 초서신동으로 불렸고 후에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의 <관덕정>현판이나, 인조연간에 제주의 서예신동으로 이름난 정상명의 정의향교 <명륜당>현판도 서예사적인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무관으로 대자서를 즐겨 썼던 목사 김영수의 <탐라형승>은 관덕정이라는 건물의 성격에 부합하는 힘찬 필세의 편액이

60) 박선양(생몰년 미상)은 무신으로 1881년(고종 18) 5월에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1883년 5월에 이임함.

보는 이를 압도하는 편액서의 백미이라 할만하다. 김정희의 <의문당>의 경우 편액의 주문자와 현판의 각자 등을 알 수 있는 이면의 기록이 있어서 각자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연희각> 현판에 대한 고증은 본 논문의 성과라 자평한다. 한편 제주에는 많은 유배객들의 거쳐 갔음에도 김정희의 작품만 전해지고 있는 점을 아쉬운 점이다. 조선 전기의 고득중 서예가 위·진의 고법에 천착한 경우라면 조선 말기의 김정희 서법은 唐代의 구양순의 해서로 들어가서 진한의 예서필법에서 득력을 하고 종정과 금석, 명·청대제가의 서법의 바다를 종횡으로 섭렵하여 파격의 추사체를 제주의 적소에서 이루어냈다. 그런 가운데 <연희각>, <의문당> 등의 편액은 차분하면서도 단엄하고 방정한 절제미를 보이는 반면, 현판을 제작하면서 문양으로 장엄하게 함으로써 문인화적 미의식을 접목한 서사자의 隨時處變의 아취를 엿볼 수 있다.

조선 최고의 명필 김정희의 영향은 제주서단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고득중이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으로 제주에서도 조맹부 필적의 영인본법첩이 간행되면서 송설체가 풍미하였었는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구양순·유공권 등 唐體를 통해서 서법의 진수로 들어가려는 복고적 서풍이 일었고, 김정희를 따르는 다수의 제자들은 추사체를 익히는 풍조가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게 된다.

제주지역의 현판양식은 후기로 갈수록 테두리목을 덧대고 현판 주변부에 문양장식이 가미되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검소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제주의 열악한 자연환경의 영향과 반도와는 다른 생활문화 또는 건축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문화지배층이라고 할 만한 왕조교체기 및 端宗의 폐위에 반대하여 자발적으로 입도한 선비들이나 유배객의 후손들의 은둔자적 삶의 태도도 적잖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주지역 주요 편액현판 대부분이 관공서의 것에 한정되어있어서 서체의 다양성이라든지 예술적인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 현존하는 편액현판은 당대의 명필가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예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다. 특히 김정희와 관련된 편액현판을 통해서 시대적 양식변화보다는 지역적 환경 그리고 가문이나 작가 개인의 취향이 양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고건축물의 복원과정에서 수반되는 편액현판의 복원에도 당대의

양식이나 예법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홍화각>의 경우 원래의 현판에는 테두리목이 없는데 복제품은 빗각목재의 테두리목을 두른 점은 시대양식에 어긋난 경우이고, <望京樓>의 경우 현대 작가가 초서체로 씌으로써 당시 유교를 국시로 내세웠던 조선시대의 군신의 예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라 하겠다. ‘망경’은 한양에 계신 임금을 우러러 바라보라는 뜻으로 공경의 뜻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덕정>현판의 경우 현판을 양쪽에서 쇠못으로 받치고 있는데, 쇠못은 녹이 슬고 쇠못을 받친 부분은 나무가 부식이 심해지고 있어 관리가 요망된다. 아무튼 이 연구가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필수적을 수반되는 편액현판의 복제 또는 편액현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관심제고와 더불어 현판의 예술적 가치와 편액 글씨로의 서예사적 인식의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원전

『論語』

『孟子』

『禮記』

金尙憲 『南槎錄』

金錫翼 『心齋集』

金正喜 『阮堂全集』

淡水契 『增補耽羅誌』

申公濟 『海東名跡』

李源祚 『耽羅錄』

李源祚 『耽羅志草本』

李元鎮 『耽羅志』

天理圖書館所藏影印本 『增補耽羅志』

2.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2011.

琴河淵·吳采錦 엮음, 『段玉裁注 說文解字 聲符辭典』, 日月山房, 2013.

문화재청, 『宮中懸板』, 문화재청, 1999.

박왕희, 『한국의 향교 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9.

오문복, 『제주도 마애명』, 제주도, 2000.

_____,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吳世昌/東洋古典學會, 『國譯 槿域書畫徵』 上, 시공사, 1998.

包世臣, 정충락 옮김, 『藝舟雙楫』, 미술문화원, 1986.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의 편액』, 한국국학진흥원, 2016.

홍기표, 『제주의 편액』, 제주문화원, 2016.

3. 연구논문

- 고창석·김익수, 『삼성사 소장 고문헌·편액』, (재)고·양·부삼성사재단 2016.
- 국립중앙박물관, 『秋史 김정희: 學藝 일치의 경지』, 통천문화사, 2006.
- 권진호, 「한국 편액의 문화적 가치」, 『한국의 편액 II』, 2016.
- 김연호, 「정방사와 덕주사 편액과 비봉루의 봉은웅찬」, 『奈堤文化』 13, 내제문화연구회, 2002.
- 오창림,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耽羅文化』 5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 유지복, 「경포호 누정 편액의 서예사적 가치」, 『인문과학연구』 49,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6.
- 이민식, 「추사 김정희의 편액」, 『추사연구』 8, 추사연구회, 2010.
- 지태승, 「제주지역 사찰 전각의 양식상 고찰」, 『제주사찰 건축물의 역사와 실체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사단법인탐라성보문화원, 2017.
- 최다은, 「성균관 현판 연구」, 『書藝學研究』 29, 한국서예학회, 2016.
- 홍병화, 「제주도 사찰건축의 역사와 실체에 대한 모색」, 『제주사찰 건축물의 역사와 실체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 사단법인탐라성보문화원, 2017.

4. 도록

- 洪性欽, 『研農先生遺墨』, 耕信印刷社, 1989.

5. 인터넷 자료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
- HYPERLINK “<http://blog.naver.com/kty0752/100050987064>”<http://blog.naver.com/kty0752/100050987064>.
- http://www.jejusori.net/?re_page=1&mod=news&act=articleView&re_total=1&idno=79884
- 『三國遺事』(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高麗史』(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宣和奉使高麗圖經』(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朝鮮王朝實錄』(한국사데이터베이스 HYPERLINK “<http://db.history.go.kr/>”<http://db.history.go.kr/>).

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 Study of the Hanging Signboards(扁額懸板) in Jeju Region in the Joseon Dynasty

Oh, Chang-Rim*

This paper examined the main Pyeonaek inscriptions in Jeju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Eleven Pyeonaeks, one of the most important Pyeonaek inscriptions in the are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identity type of the person who wrote the letter, you can split it into those from Jeju Island, the betters, the sheeters, the shrokers' offi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Jeju has seen few Pyeonaeks from the Joseon Dynasty, other than public buildings. The changes in the style of the signboard are simple and simple, although the frame is overlaid with frills and a motif is attached around it. This is in contrast to the considerable portion of the Pyeonaek of the peninsula, which is used as a relic of a royal court, a temple, or a footstall to reveal its authority through grandeur and decoration. Jeju's case is most likely due to its state-owned appearance, except for government buildings and some larger temples, while its local characteristics, unlike the peninsula, are due to its lack of Nujeong culture. In particular, it seems to reflect the attitude of the reclusive elite, who are considered the cultural leaders of Jeju, following the replacement of the emperor and the expulsion of the Emperor from the Emperor.

* Ph. D. stud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Gwandeokjeong, Yeonhuigak, Jejumok, Tamnahyeongseung, Honghwagak.

교신: 오창립 63125 제주시 신대로 70, 덕일빌딩 5층 502호

오창립 서법·서예연구원

(E-mail: japari@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1. 07

심사완료일: 2018. 01. 23

게재확정일: 2018. 01. 31